

 교육부		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0. 3. 2.(월) 배포</p>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코로나19대학긴급대응팀	담당자	팀 장	최화식 (☎ 044-203-7141)	
			사무관	배기주 (☎ 044-203-7145)	

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, 차질없이 진행 - 가톨릭관동대 확진자, 선제적 조치로 접촉 최소화 -

- ◆ 가톨릭관동대학교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선제적 보호·관리로 감염증 확대 방지
- ◆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입국전/입국시/입국후 단계별 관리
- ◆ 한·중 교육부 간 상호간 입국 자제 합의에 따라 중국 입국 유학생 수 감소 가속화 전망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, 한·중 양국 교육부간 합의한(2.28) ‘유학생 상호간 출·입국 자제 권고’에 따라 입국자 수는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.
- 어제(3.1.)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은 인천공항 입국 당시부터 대학의 직접 관리 하에 전용버스를 통해 바로 이송하고 대학 생활관에서 보호 받는 등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되었다.
- 가톨릭관동대학교 유학생은 인천공항에 도착(2.28. 14:20)하여 대학 직원의 인솔하에 전용버스로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(18:30),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 실시 후, 대학 생활관에 입소(19:00)하였다.

- 생활관(1인 1실) 입소 후, “양성” 확진 통보(3.1. 06:00) 받기까지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였으며 대학은 별도 관리자를 통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였다.
- 이번 중 국 입국 유학생 확진자는 지역별·대학별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발견되었다.
- ‘중국 입국 유학생 현황 및 보호·관리방안(2.16, 2.23)’에 따라 중국 유학생과 국민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.
 - ① (입국 전) 대학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학사운영계획과 입국 후 14일간 등교가 중지되며 외출을 자제하여야 함을 사전에 안내하고, 필요시 휴학도 권고한다.
 - ② (입국 시)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특별입국 절차를 거치게 되며, 발열체크, 특별검역신고서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‘자가진단 앱’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유학생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에 전용 안내 창구 2개소를 통해 대학에 입국사실을 알리도록 하고, 감염병 예방 수칙과 대학별 전달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,
 - 인천공항에서 대학(숙소)까지는 대학(지자체)에서 마련한 전용 버스로 이동하게 된다.
 - ③ (입국 후) 입국 후 14일간 외출과 타인접촉 자제 등 감염병 예방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,
 - 대학별 1일 1회 이상 발열체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 - 또한,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자가진단 앱 정보를 대학과도 공유하여 상호 교차 검증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단계별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.

< 중국 입국 유학생 단계별 관리방안 >

입국 전	입국 시	입국 후(14일간)
· 학사운영계획, 입국후 14일간 등교 중지 및 외출 자제 등 사전 안내 · 휴학 권고 등	· 공항검역, 자가진단앱 설치 · 공학→대학 전용셔틀 이동 · 입소 전 생활 수칙 안내 및 사전 동의 후 입소	· 1인 1실 배정 원칙 · 타인과 접촉 자제 등 예방 수칙 준수 지도 · 1일 1회이상 건강상태 등 모니터링

-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감염병 대응 및 중국 유학생 보호·관리 체계지원을 위해 지난 2.26.부터 7일간 중국 유학생수 50명이상 대학(113개교)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.
- 현재까지의 중국 입국 유학생 현황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.
 -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수는 작년 2월에는 3만 8,731명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1만 4,834명으로 62% 감소하였다.
 - 당초 집중 입국기간으로 예상되었던 지난주 2.24.(월) ~ 2.29.(토) 동안의 입국인원은 3,818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8,234명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며, 특히, 2월29일에는 486명이 입국하여 당초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1,839명의 26% 수준에 그쳤다.

< 중국 입국 유학생 수 >

(단위 : 명)

구분	2.29.(토)	2.28.(금)	2.27.(목)	2.26.(수)	2.25.(화)	2.24.(월)
출입국 기록 (실제 입국 유학생)	486	463	516	691	841	821
입국예정일 조사*	1,839	1,676	1,248	1,197	1,309	965
입국예정일 조사 대비 실제 입국자 비율	26.4%	27.6%	41.3%	57.7%	64.2%	85.1%

* 입국의사는 있으나 입국일을 답하지 않은 인원 제외

- ‘한·중 교육부, 각국의 유학생 보호를 위한 상호간 입국 자제 및 학생 불이익 최소화 합의(2.28)’에 따라 중국 입국 유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대학,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는 물론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확진자 인적사항

○ 성명 : 000 000

○ 학과/학년 : 000학과 / 0학년

※ (가톨릭관동대) 전체 중국 유학생 중 117명 중 **24명** 입국('20.2.29. 기준)

□ 확진 경위

○ (2020.02.28. 14:20.) 인천공항 도착, **학교버스로** 강릉으로 출발

○ (2020.02.28. 18:30.) **강릉 아산병원** 도착, 선별진료소에서 **검체 실시**

○ (2020.02.28. 19:00.) 보호조치 시설인 생활관 입실(1인 1실)

○ (2020.03.01. 06:00.) 강릉 아산병원, “**양성**” 확진 통보

○ (2020.03.01. 09:30.) 삼척의료원 이송

□ 밀접 접촉자

○ 버스기사, 인솔자 등 : **자가격리** 조치 중

※ 확진자 이용시설 및 이동경로 소독 완료

□ 대학 조치계획

○ 개강 전 교내 전 건물 소독 예정 (강릉시 협의)

○ 3.16. 예정 개강일 추가 연기 검토